

SML Speaking Coaching Lab



다국어 구사자 자신들의 다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

Charles Sturt University 에서 연구한 'Multilingualism and Social Identity'는 다국어 구사자들이 자신의 다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Multilingualism and Social Identity: 이 연구는 다언어 구사자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 다언어 구사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사회적 정체성을 보다 유연하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 대상과 연령:

연구 대상: 다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120명의 대학생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출신)

대상 연령: 18-25세

연구 방법:

실험 대상들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다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자신의 인식,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타인들의 인식에 대한 응답을 수집함.

수집한 응답을 통해 실험 대상들의 인식을 분석함.

연구 결과:

대부분의 다국어 구사자들은 자신이 다국어 구사자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다국어 구사 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함.

자신의 다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타인들의 인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

다국어 구사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더욱 즐기는 경향을 보임.

위 연구 결과는 다국어 구사 능력이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으며, 다국어 구사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식과 타인들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으므로,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과 타인들 간의 소통 및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고려 사항임을 시사합니다.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 연구는 다국어 구사 능력과 사회적 정체성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데에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